

양형모의 아이 러브 스테이지 | 연극 '푸르른 날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연극 '푸르른 날에'. 2011년 초연 때는 사전 예매율이 저조했지만 평단, 언론, 관객의 '삼위일체 호평'이 쏟아지며 한국연극의 대표적인 흥행작이 됐다. 사진제공 | 신시컴퍼니

# 5.18 광주의 상처, 달달하게 치유하다

작품성으로 한국 대표흥행작 등극 낮간지러우면서 과장된 톤 대사들 무거운 이야기를 밝게 만드는 감초

'아픔'은 '슬픔'이 되고, '슬픔'이 '깊음'을 얻으면 '기쁨'이 남는다.

연극 '푸르른 날에'를 보면서 든 생각 한 조각이다.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아픔이요 고통이었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지만 아픔을 아픔으로, 고통을 고통으로만 풀지 않았다. 분명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카메라의 초점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독특하고 완성도 높은 연극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배우들의 대사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대사의 톤. 과장되고 심지어 어색하기까지 하다. 5.18의 상처를 잊

기 위해 스님이 된 여산(김학선 분), 그의 연인으로 여산의 아이를 가진 정혜(정재은 분), 여산의 형 오진호(정승길 분), 과거의 여산인 오민호(이명행 분), 과거의 정혜(조윤미 분), 여산과 정혜의 딸 오은화(채윤서 분) 등 배우들의 대사는 마치 무성영화의 번사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참 절묘하다. 게다가 대사들도 근사하기 짝이 없다.

"아, 저기 저 여자는 푸르른 날의 나, 윤정혜!(정혜)"

"저기 저 남자는 푸르른 날의 나, 오민호구나!(여산)"

"비록 지금은 흥배도 나오고 트림도 꺼 여격여 해대지만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던 사이!"

이런 낮간지러우면서 과장된 톤이 쓰인 아메리카노에 살짝 딸국 단 시럽 같은 맛을 낸다. 아프지만 덕분에 달달한 아

픔이 되었다. 관객은 눈시울을 붉게 물들이면서 입으로 웃는다.

●초연 사전예매 120석... '삼위일체 호평'이며 흥행대표작 등극

작품이 좋으면 배우들도 신이 난다. 보고 있으면 배우들이 얼마나 이 작품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지 30분도 안 돼 느낄 수 있다. 이영석(일정 역), 정재은(정혜 역)같은 베테랑 배우들조차 까마득한 후배들과 함께 기본 발생연습부터 참여했다고 한다. 작품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남산예술센터와 공동제작을 맡은 신시컴퍼니의 박명성 대표는 "4년 동안 매년 무대에 올리면서 같은 배우, 같은 스태프로 공연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에피소드 하나. 지금은 한국연극의 대표 흥행작이 되었지만, 2011년 초연 때는 사전 예매율이 저조하다

못해 처참할 정도였다. 정확히 말하면 딱 120석이 팔렸다.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푸르른 날에'의 작품성은 관객들이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평단, 언론, 관객의 '삼위일체 호평'이 쏟아졌다. 막을 내릴 때는 80%의 객석점유율을 과시했고, 2012년과 2013년 공연은 전화매진을 기록했다.

관람을 위한 팁을 드린다. 여산님의 스승인 일정의 대사에 귀를 기울일 것. 한 마디 한 마디가 깨알같은 삶의 지혜다. 램프를 빠르게 내뱉으니 집중해야 한다.

오민호의 물고문 신은 이 작품에서 가장 무거운 장면이다. '과연, 이명행이다' 싶은 명연기이니 숨을 죽이고 감상해야 한다. 이번에 처음 투입된 오은화 역의 채윤서는 연예가중계 리포터, 밴드 이브브글로우의 보컬리스트로도 친숙한 배우다. 6월8일까지 서울 예장동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한다.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컬처박스

여행작가 변종모의 다섯 번째 에세이



●책=나는 걸었고 세상은 말했다 (변종모 저 | 시공사)

섬세한 시선, 나지막한 글소리로 삶을 이야기하는 변종모 작가의 다섯 번째 에세이. 여행가이기도 한 작가가 10년 넘게 세상을 여행하며 맛달뜨린 순간의 편린들을 모아 엮었다. '길 위에서 만난 말들', '내 안의 말들', '길 위에 두고 온 말들'의 총 3장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장은 발걸음이 닿았던 곳에서 느낀 여행의 일상 속 낱말, 평범하지만 새롭게 정의한 낱말에 대한 이야기다. 두 번째 장은 마음속에서 무수히 증폭되고 흩어졌다 다시 엮힌, 조금은 거친 내면의 낱말이다. 마지막 세 번째 장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 그린 추억을 담았다. 마음에 드는 낱말을 만나면 귀퉁이를 집어놓고 몇 번이고 읽어보길 권한다. 지금 느끼는 삶의 무게가 틀림없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다.

양형모 기자

십자군전쟁 속 종교적 갈등과 해소



●연극=현자 나탄 (6월21일~7월2일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진리는 소유가 아니다. 진리는 사랑과 관용의 실천 속에서 입증된다. 이것이 연극 '현자 나탄'의 주제다. 관용의 목표는 한 종교로의 통일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상호 존경에 있다.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교인은 종교보다는 개성을 가진 인격체이자 인간적인 면모가 두드러진 인물로 묘사된다. 작품의 결말에서 세 종교를 대변하는 인물들은 서로가 혈연관계의 공통된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갈등은 해결된다.

'현자 나탄'은 독일 계몽주의 작가이자 독일 근대희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트홀트 레싱의 마지막 희곡작품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공연된다. 1191년 제3차 십자군전쟁 시기의 예루살렘이 배경이다. 영국 리처드 왕과 위대한 술탄 살라딘의 대결 속에 담긴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의 갈등과 해소를 다루고 있다. 연극적 유머, 러브스토리과 같은 풍성한 소재를 활용해 보는 재미를 준다.

극단 '전설'과 2013년 창단된 '중창단(중견연극인 창작 집단)'이 합동으로 만든 연극이다. 김석만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겸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이 연출을 맡았다. 정재진이 '나탄', 이수수가 '술탄 살라딘'으로 출연한다. 6월21일부터 7월2일까지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양형모 기자



시중 판매 일부 소시지 제품 식중독균 검출 등 관리 미흡

조리·해동방법 등 표시도 부적합

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소시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고, 주의사항 및 조리방법 등에 대한 표시도 미흡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2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중인 소시지 제품 22종에 대해 병원성 세균 검사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균이 검출된 제품은 와이제이푸드시스템의 불갈비맛소시지(유통처 티켓몬스터)와 코주부B&F의 코주부에 버섯불고기소시지(유통처 쿠팡) 2종이다. 균이 검출된 제품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또 표시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리 및 해동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8개 냉동제품 중 6개 제품의 표시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재냉동 금지' 표시가 없거나 (3개), '조리시 해동방법' 표시가 없거나 미흡 (6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가열제품(2개)도 '조리방법'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철저한 위생관리와 지도단속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재혁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22일 공개된 기아자동차의 '올 뉴 카니발'은 아웃도어 마니아들에게 사랑, 가격, 성능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제공 | 기아자동차

확 바뀐 '올 뉴 카니발' 수입 미니밴 뺨치네 4월 팝업 싱킹 시트 도입...적재 편의 UP

편의사양, 가격, 동력 성능 모두 기대 이상. 출시 전부터 아웃도어 마니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기아차 3세대 카니발이 드디어 공개됐다. 기아자동차는 22일 서울 광진구 W호텔에서 '올 뉴 카니발'을 공개하고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 1998년 1세대 모델 이후 9년 만에 3세대 모델로 새롭게 선보인 '올 뉴 카니발'은 수입 프리미엄 미니밴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진화했다.

일단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다. 기존 모델 대비 전장은 15mm, 전고는 40mm 줄여 안정감을 높이고 더욱 역동적인 외관을 완성했다. 아웃도어 라이프에 초점을 둔 편의 사양도 충실히 보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세계 최초로 적용된 4월 팝업 싱킹 시트다. 4월 등

받이 시트를 앞으로 접은 후 별도 이동 없이 그대로 누르면 바닥으로 4월이 들어가 평평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기존 카니발 4월을 접어서 생기는 공간(261리터)보다 2배 이상 적재 공간이 늘어난다.

시트 구성도 바꿨다. 기존 3열에서 4열로 조정하고, 1~3열 중앙 시트를 없애 차량 내 이동 및 승차 공간의 쾌적함을 높였다. 아울러 스마트키를 지닌 채 차량 뒤쪽으로 이동하면 뒷문이 알아서 열리는 스마트 테일게이트, 4개의 카메라를 통해 차량 주변 360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전방 감지 카메라 신호를 이용해 차량 충돌 예상시 운전자에게 경보해주는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 및 차선미탈 경보 시스템 등의 안

전 및 편의 사양도 충실히 보강했다. 고가의 수입 미니밴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옵션들로 국내 미니밴으로는 최초 적용됐다.

동력 성능과 연비도 높였다. R2.2 E-VGT 디젤 엔진을 사용,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5kg·m으로 기존 모델 대비 각각 2.5%, 1.1% 성능이 향상됐다. 이 엔진은 유로6 규제를 만족시켜 국내 저공해차 인증도 획득했다. 혼잡통행료 50% 할인, 공연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2015년 9월까지 한시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다. 연비는 기존 모델보다 5.5% 향상된 11.5km/리터. 가장 큰 관심이었던 차량 판매 가격은 9인승 2990만~3640만원, 11인승 2700만~3590만원이다.

원성철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바이오&메디컬 코리아 28일 개최

국내의 제약사·종합병원 등 280여개 기업 참가

'바이오&메디컬 코리아 2014'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9회째를 맞는 국내 보건산업 대표 박람회인 '바이오 코리아'와 글로벌 헬스케어 및 의료관광 행사인 '메디컬 코리아'가 통합돼 열리는 행사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청북도가 공동주최한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280여개 기업과 2만여명이 참가한다. 국내에선 종근당, 녹십자, 보령제약 등 제약업체와 해외환자 유치에 나선 고려대 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 아산병원 등 종합병원들도 전시부스를 내고 자신만의 의료 경쟁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바이오 코리아에서 1700억원 상당의 수출계약과 850억원 이상의 투자 상담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는 메디컬 코리아와 통합 개최되는 만큼 지난해의 성과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혁 기자

해외보다 비싼 삼성 울트라북...왜?

국내 가격 1.2배 더 비싸...판매·유통 환경 탓

삼성전자 울트라북의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2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 아래 6개국(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영국)의 울트라북(무게가 가볍고, 두께가 얇은 노트북)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의 국내 소비자가격은 해외보다 1.2배나 비쌌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 울트라북의 가격은 한국에서 163만1745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중국(126만7030원), 미국(126만7311원), 대만(135만5028원), 영국(138만6238원) 순이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국내외 가격 차이는 판매와 유통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서비스 수준의 차이와 소비자 관련 세율 및 시장경쟁상태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재혁 기자